



**산란계군 감소에 따른 고가의 시세 이어갈 듯**

◆ 동향

계란단가가 수도권기준 특란 173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지난해 산란실용계 분양수 감소에 따라 산란계사육마리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수가 170만수를 넘기면서 계란 생산기반을 더욱 약화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고병원성 AI에 따른 소비위축이 생기지 않아 소비량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며, 이로서 단가는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산란종계 살처분에 따른 병아리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난가가 장기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유통상인 및 농가에서 계란 재고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가세해 난가 강세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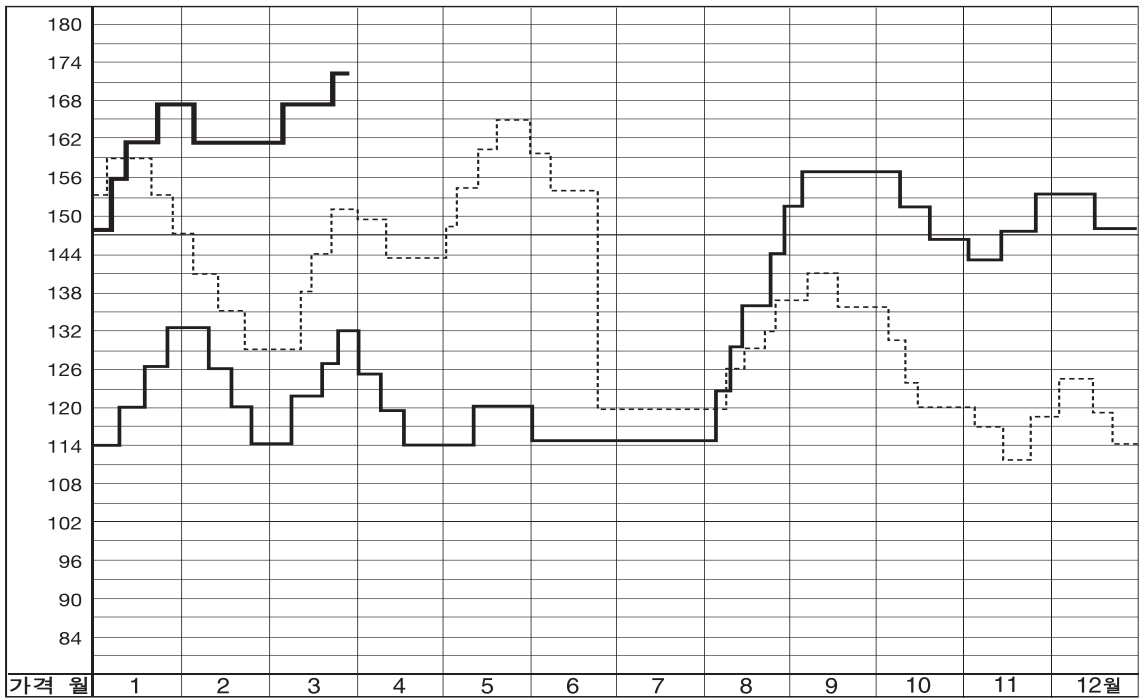
지난 2월 종계입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란계 분양수수는 종계 살처분에 따른 판매수 급감으로 1,659천수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04년도 이후 최저치이다. 2월 하순부터 부화장이 재가동되면서 입란이 시작된 만큼 3월부터는 차츰 증가세를 보이겠다. 하지만 이미 살처분된 산란종계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병아리공급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겠다. 1월 육추사료 생산량은 27,060톤으로 전년대비 7%증가하였고, 산란사료 또한 181,035톤으로 전년대비 6.9%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2월들어 사료생산량 또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망

난가는 보험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4월 24일 위치한 부활절과 꾸준한 계란소비로 현 시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겠다. 근본적으로 계란 생산계군이 전년대비 감소한 상황 이여서 계란 여유물량이 생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농가에서 노계출하를 미루고 있어 큰 알의 경우 차츰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난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중간 유통상인들의 경우 산기가격 인상에 따른 거래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란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구매 위축까지 겹쳐 계란 시장 전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4월부터 축산물 위생관리가 강화되면서 계란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고 계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이 신설되어 계란유통 종사자들의 영업신고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변경되는 사항을 주지하시어 혼선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하겠다.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9-- 2010 - 2011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중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1,336	1,629
3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4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5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6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7	2008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9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33,000	2,465	27.2	157.6	939	1,150
8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9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10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11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12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계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2008년 1월부터 중계입식수에 브라운너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시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2009년 11,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